

2011년 4월호  
(통권 209호)

# 해나리

꿈과 사랑을 가꾸는 목5동 성가정 성당



해는 태양(陽)· 나리는 내(川)의 옛말로, 해나리는 하느님의 빛이 햇빛처럼 내리는 우리 고을 양천을 의미합니다.



## 성모의 노래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뒤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셨다. 그 때 엘리사벳의 찬송을 들으시고 성모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송하신 노래이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고,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 힘을 펼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도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중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니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표지 이콘 설명)

### 영원한 도움의 성모

가톨릭에서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나 동방 교회에서는 '수난의 성모'라고 불리는 이콘이다.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미카엘 대천사가 예수님의 늑방을 찢었던 창과 신포도주를 적셔 입에 대드렸던 해면을 썬 막대기를 들고 있으며, 그 반대편에는 가브리엘 대천사가 십자가, 그리고 때로는 못과 함께 들고 있으며, 이들 수난의 형구를 보며 화급하게 어머니 품에 달아드는 모습으로 아기 예수를 묘사 했으며, 그 이유로 샌들 한 짝이 벗겨져 매달려 있는 모습이 함께 그려진다.

이 이콘이 서방에 전해진 후 수 많은 이들이 도움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도움의 성모'라고 불리게 되었다.

목판에 에그 템페라 60 x 75

## 한눈에 보기

여는 페이지	02	성모성월
해나리 열어보기	03	내용 한눈에 보기
연재합니다	04	날마다 생각한 하느님(20) ·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특집 1	07	사순특집
신부님 우리 신부님	10	목5동 교우 여러부~운! · 홍서영 바오로 신부님
수녀님 우리 수녀님	12	그리스도의 사랑 · 전마리 비안네 수녀님
특집 2	14	성가정 갤러리 이콘 축복식
글마당	16	취청굴처럼 이어진 짧은 날의 천주교 · 김성우 요셉
	21	봄 · 김정희 마리엠마
	22	3구역 1지역 피정 소감문 · 서남희 데레사, 김현주 보나
	24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레지오 20년 차립니다 · 황경희 엘리사벳
	26	신앙생활과 마라톤이 너무 닮았어요 · 안병정 요셉
	28	성경필사를 하며 · 선우 원건, 선우 양건
	29	부활 선물을 준비하며 · 정다솔 세례자요한
	30	중 · 고등부 주일학교 · 김도현 아녜스
본당소식	32	사진으로 보는 본당의 소식
문화 소식	34	성모회에서 북카페를 개업했습니다 · 이순자 안나
소공동체 모임	35	3구역 1지역 소공동체 모임 · 한수정 소피아
농산물방	36	환경 생태 사도직 - 우리의 실천 · 조해봉 요셉 신부님
광고	37	



발행인 이영춘 세례자 요한 주임 신부님  
 편집 백명애(마르가리타), 이성재(마리안나)  
 사진 황경희(엘리사벳), 이승환(대건 안드레아)  
 발행일 2011년 4월 (209호)  
 전화 2644-1100 FAX 2644-9100  
 E-mail haenari0330@hanmail.net 홈페이지 www.mok5.com(한글주소/목5동성당.com)  
 표지사진 영원한 도움의 성모



## 날마다 생각한 하느님 (20) - 용서를 베푸시는 성령 하느님 -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님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던 그것은 다 용서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르 3, 28-29)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또 다른 체험을 겪었습니다. 성령체험입니다. 성부는 아버지라는 모습으로, 성자는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 보아야할지 막막

합니다. 옛적에는 성신(聖神)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거룩하신 신, 거룩한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부도 거룩한 하느님이시고, 성자도 거룩한 하느님이시니 성신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성부와 성자와 달리 성신, 성령이라고 불리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좀처럼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화가들은 성부를 하얀 수염이 난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립니다. 성자 예수는 검은 수염에 긴 머리의 모습으로, 때로는 양을 어깨에 멘 착한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성령은 비둘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분명 비둘기는 성령이 아닙니다. 비둘기는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도대체 성령은 어떤 분이고 무엇 하는 분이실까?

제자들은 성령을 어떤 분으로 체험하였을까?

우선 성령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루아하’ 즉 바람, 숨, 생명, 영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성서의 ‘프네우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는 ‘루아하’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인 이 루아하가 휘돌고 있었다.’ (창세 1,2)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어둠이 깊은 물 위를 휘도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고, 위대한 작가가 작품을 만들기 전에 구상을 떠올리는 영감과 비교해 볼 수 있음을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빚어낸 아담에게 하느님의 영, ‘루아하’, 즉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다.

바람으로서 하느님의 성령은 홍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탈출 14,21),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허기를 면하게 해주기도 하십니다(민수 11,31).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바람은 시원한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성령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하느님의 성령은 관관들에게, 삼손에게, 사울에게, 예언자들에게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힘과 능력을 주시거나 예언의 능력도 주십니다(판관 3,10; 14,6).

또 하느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맘레 상수리나무 아래 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느님은 세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창세 18,1).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시라는 것을 암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느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신약성서를 보면 좀 더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은 사도들에게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도들과 그 밖의 신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하느님의 성령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십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성령에 관한 신약성서의 기록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라”(마태28, 19)의 말씀 이외에도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던 그것은 다 용서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마르 3, 28-29). 도대체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께 죄를 지으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란 무엇 일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 하느님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할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 심판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주실 것이다” (요한 16,7-11). 더욱 우리의 눈길을 끌게 하는 대목은 하혈 병을 앓고 있던 어느 여인을 치유해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이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활동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나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마태 12,28)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악의 세력을 쫓아내신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잉태하셨고,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이 알려집니다.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에서 40일간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 사순 특집



## 성지 주일

그 출생부터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은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능력을 선사하는 분이십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복음에 그 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모두 문을 닫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 19-23).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면,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면 우리는 분명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를 받은 셈입니다. 우리는 고백성사만 보면 죄를 용서받는다 고 배웠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아주 쉽고 흔한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요르단 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너무 쉬운 명을 받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부하의 충고로 그 명을 따라 몸을 씻고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고백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간단해서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시시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란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 때문에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압니다. 외국 영화 ‘쇼생크 탈출’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소설 ‘빙점’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용서를 느낄 수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은총의 명령입니다.



## 주님만찬 성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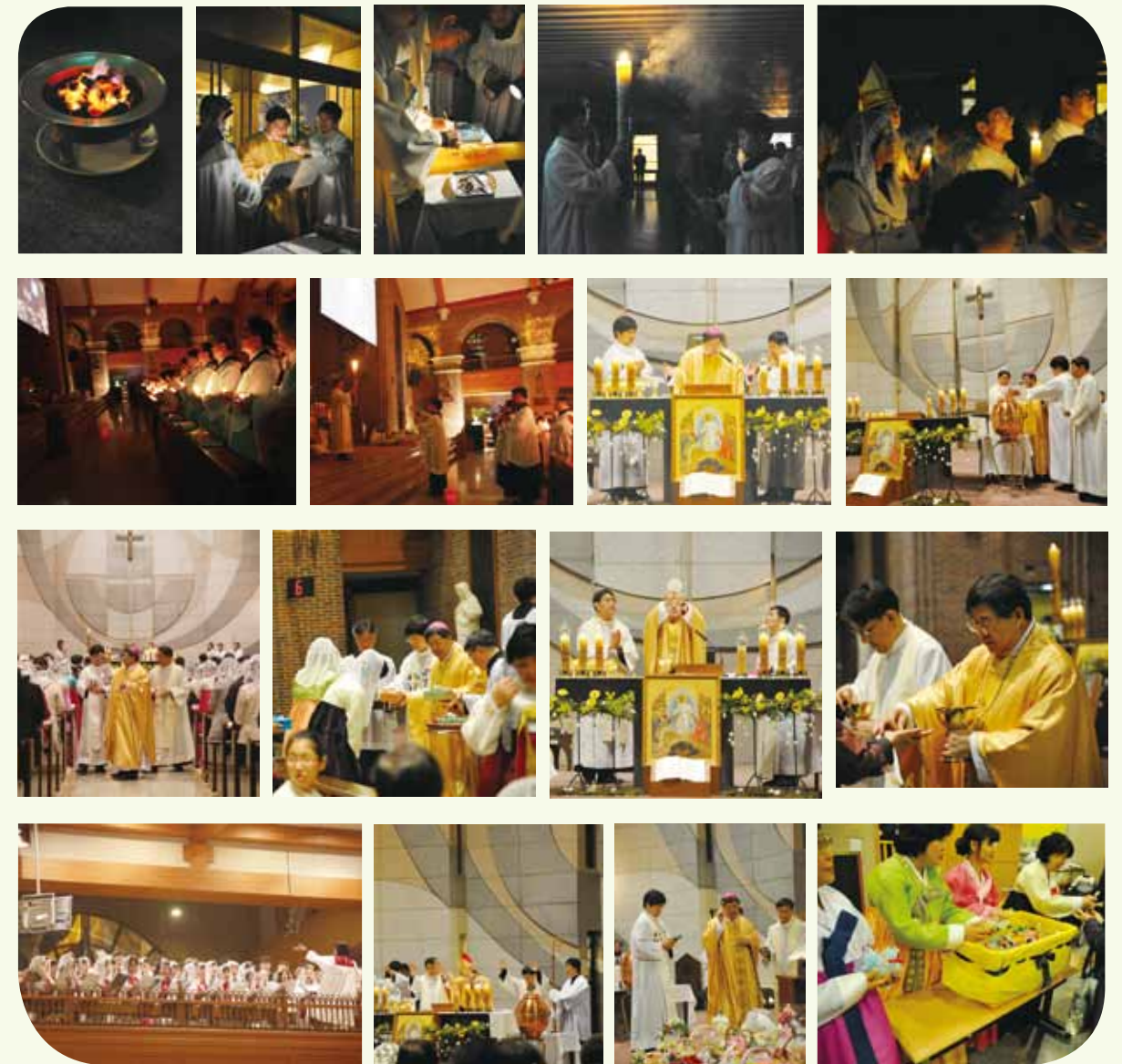


주님수난 성 금요일



부활성야

ALLELUIA





## 목5동 교우 여러분~운! 본당 설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당출신 첫 사제 홍사영 바오로 대치 4동 주임신부님



새 하늘 새 땅에 새 성당이 설립된 지 벌써 25주년이 되었다니, 그저 감개무량하고 하느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록 육신의 몸이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사제로서의 꿈을 안고, 신학생으로 칠년을 성당 설립과 함께 보

냈으니, 목5동 성당은 저한테는 영적인 고향이며, 또한 영원한 고향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인사말을 하라는 말을 듣고 그간 잊고 지냈던 목5동 성당의 추억이, 요즘 젊은이들의 말대로 갑자기 폭풍처럼 되살아나서, 잠시 그 열기를 식히느라,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시작하였습니다.

목5동 성당 교우 여러분, 그간 안녕하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교구 대치4동 본당 주임신부로 있는 홍사영 바오로 신부입니다.

제가 목5동 성당과 인연을 맺은 지 25년이요, 사제가 되어 그곳을 떠난 지도 벌써 18년이 되어서, 아마도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리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는 1987년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5동 성당의 설립과 함께 신학생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목5동 성당의 첫 번째 신학생이었고, 그 결과로 1993년 목5동 성당의 첫 번째 사제가 되는 과분한 영광을 안은 운 좋고 복 많은 신부입니다.

정말 많은 추억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그 책들은 이 세상을 다 채우고도 남을 것 같아

서, 한 가지 추억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당이 설립되고 첫 번째로 맞이한 파스카 성삼일의 기억입니다.

당시에는 성당도 땅도 아직 없을 때라서, 신부님이 계신 아파트 사제관에서 평일미사를 봉헌하고, 주일에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유치원 건물을 빌려서 그곳으로 오르간이나 제대 등을 싣고 다니며 주일 미사를 봉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파스카 성삼일은 평일 날 저녁에 전례를 봉헌하므로 그 유치원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본당 신부님께서서는 단지 외곽, 엄지미 마을에 있는 한 교우의 작은 파밭에 눈독(?)을 들이셨고, 모든 분들의 협조로 그 파밭에서 성삼일 전례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파가 잔뜩 심겨져 있는 밭을 전례 장소로 쓰자니 할 일이 그야말로 태산이었습니다.

본당신부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그 밭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파를 뽑고, 주변으로 천을 둘러서 야전 성당을 꾸몄습니다. 마침 제대가 놓일 자리에 방범 초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간이 유일하게 비를 피하거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천막도 세워졌고, 스피커도 달고 수은등도 달아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느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그 파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제대도, 오르간도, 십자가도, 촛대도, 그런 큰 전례를 거행할 준비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역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신학과

1학년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만, 신학과 4학년이나 되어야 입을 수 있는 수단을 빌려 입고, 마치 보좌 신부가 된 것처럼 목에 힘도 줌 주고,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며 본당 신부님을 도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뭐 굳이 그 상황을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보셔도 비디오 그 자체입니다. 전례계획은 있었지만, 그저 준비된 만큼만 이루어진 파스카 성삼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5년이 지나 오늘, 저도 본당 신부인지라, 성주간과 파스카 성삼일이 되면 머리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제 생활 18년의 경력 때문인지, 처음 목5동에서 지냈던 파스카 성삼일의 설렘은 지금은 제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성을 다하고 신자들과 호흡을 맞추며, 파스카 성삼일의 거룩한 전례를 통하여 주님의 수난과 부활에 함께 하곤 하지만, 글썽 파를 뽑는 수고를 하지 않아서인지, 그 파밭의 추억과 감동을 지금 다시 느껴보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요즘, 해나리를 통해 아직도 목5동은 저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점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하느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저는 그 파밭의 추억을 통하여 조금은 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파밭의 기억이 없었다면, 저는 집도 절도 없으셨던 예수님을 지금보다도 덜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있는 이곳 대치4동도 그렇지만, 목5동 성당 지역도 청소년, 젊은이가 꽤나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5동 성당은 청소년 젊은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창구요, 또 하나의 거룩한 못자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신부님들이 탄생하심을 감사드

리고 있습니다. 사제성소 일 번이 부실하여 후사가 있을까 걱정했지만, 파밭에서 다져진 신자 분들의 뒷심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목5동 성당에서 여러 명의 신부님과 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성소를 키우고 가꾸며 봉헌하는 교우들의 모습 안에서 저는 하느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시작 때 말씀드린 것같이 마음이 설레어 본의 아니게 두서없는 글이 되었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함이 옳지만, 자주 인사드리지 못함에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떠나려 해도 소용없고, 잊으려 애써도 불가능한, 저의 영적인 고향이기에, 항상 마음 한 켠에 목5동 성당을 묻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목5동 성당 설립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이제 그 젊은 나이에 걸 맞는 왕성한 신앙의 에너지를 온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목5동 본당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그리스도의 사랑

전 마리 비안네 수녀

하느님의 섭리와 안배하심으로 만나 보웁는  
목5동 성당의 신부님들과 모든 신자 분들께



하느님의 사랑은 놀라운 기적들과 도전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이번 목5동 본당으로의 소임 이동도 그러합니다. 목5동 성당으로 부임한 소감을 글로써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해나리 편집장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몇 자 적어봅니다.

어떤 분이 목5동으로 소임 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저에게 농담이 담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줄을 잘못 서셨습니까?”

“예?”

아마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수녀가 둘째수녀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놀라워하며 하신 말씀이겠지요. 신자 분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느끼듯이 저희도 쉽지 않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육화의 신비는 아무 말 없이 그분을 따르도록 저를 이끄셨습니다.

하느님이신분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람을 섬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받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무슨 다른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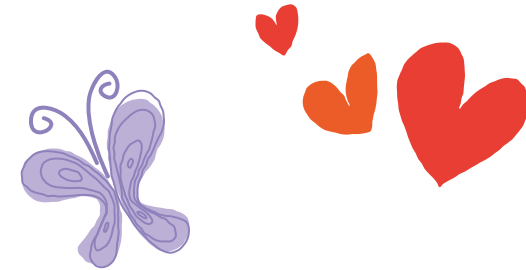
이 필요하겠습니까? 수도공동체의 쇄신을 위하여,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 저희그룹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금년 2011년 새해를 마치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 했었는데 마음속의 조그마한 소리조차 그냥 흘리지 않으시는 하느님께서 제 소리를 들으시고 마련하신 삶의 터전이 목5동 성당입니다.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작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미사 7대에 많은 성사들과 행사들... 미사마다 짹짹 차는 신자 분들의 행렬,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전례와 성가들... 새벽이면 일찍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하는 어르신들, 목5동 성당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의 기운을 느끼면서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은 손길과 섬세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손에 익지 않은 일과 바뀐 환경에 긴장을 하게 되고 이어지는 잦은 실수들... 물론 티 나지 않게 도와주시는 신부님들의 인내와 자상한 설명이 적힌 메일들, 신자 분들의 고마운 마음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였습니다. 준비정도야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저의 교만이 깨어졌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제게 주어진 일상을 시작합니다.

부끄럽게도 그동안 많은 곳에서 미사를 습관처럼 준비했었는데 요즘은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자비에 저를 놓아둡니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미사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비워내고 하느님으로 채

우는 은총의 시기를 지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임을 받아 이동한 지 벌써 두 달을 훌쩍 넘기고 세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고 긴 사순의 터널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목5동에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드립니다. 🌱

### 2011년 6월 5일 주님 승천 대축일

루카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오르셨다고 사도행전에서 증언하고 있다.

루카는 구원의 사건에서 시간이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깊이 인식했다.

첫째는 구원의 결정적 시간으로 매 순간을 초월해야 하는 '지금' '이제'를 강조하는 것이며

둘째는 구원의 긴 역사로 구원의 단계적 과정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약속의 실현을 고대했던 구약의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묵상했다. 노아 홍수의 40년, 이집트 탈출의 40년, 하느님과 시나이 산에서 대화를 나누며 지낸 모세의 40일,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야 했던 40일 여정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복음사자들은 예수의 광야 유혹 40일을 언급하며 루카는 특히 부활 후 40일 간을 예수의 지상 삶의 완결 시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교훈이다. 구원이 실현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체적 과정과 단계, 그리고 분명한 시간의 인식 속에 사람은 무엇을 다짐하게 된다. 그러나 루카는 이러한 시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실지 와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선언하고 있다. 매 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이며 종말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부활이 만남을 통한 사랑의 확인이라면 승천은 이별을 통한 사랑의 재다짐이다. 따라서 교회의 오랜 전통은 부활 후 40일이 되는 날을 예수 승천 대축일로 기념하고 있다.

- 이영춘 세례자요한, 알기 쉬운 전례와 미사 해설 -





# 성가정 갤러리 이콘 축복식

일시 : 2011년 4월 5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 소성당 주변 갤러리 개막식  
 주례 :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주관 : 목5동 성가정 성당 사목협의회 및 구역협의회



## 대관 안내

대관 장소 ▶ 양천구 목5동 성당 지하 1층  
 개관 시간 ▶ 09 : 00 ~ 18 : 00 연중무휴  
 신청 문의 ▶ 02-2644-0236 / 이메일 ▶ hfgallery@nate.com



## 칩덩굴처럼 이어진 젊은 날의 천주교

초등부 분과장 김성우 요셉



여의치 않는 가정환경으로 장학금에 의지하던 지방 국립대를 여름학기에 결국 자퇴하고 이듬해 아직도 싸늘한 날, 서울로 유학을 오니 너무 외로웠다. 부친의 대학시절 발자취를 30여 년 만에 되찾았지만 아는 이도, 딱히 갈 곳도 없이 오가는 길이란 오로지 학교가 다였다.

학생회와 학과의 일 만으로는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나는 극복할 방법을 종교에서 찾기로 했다. 신입회원 모집을 하기도 전에 가톨릭학생회를 찾아갔다. 지극히 자극적이고 빨간색의 구호가 난무하여 움찔했지만 젊은 날의 신앙을 갈망하며 불태우는 단초가 되었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추기경으로 정식 착좌하시기도 전에, 뉴스를 듣고 차후에 구두승인을 얻어 추기경배 등반대회를 개최한, 전국대학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가톨릭동아리였기에 행사도 참 많았다.

매주 수요일 오후와 토요일 주 회합, 5월의 성모의 밤, 3일간의 성서성물 전시회, 여름방학 4박 5일의 성지순례와 1주일간의 여름농활, 격월 1회의 피정, 연말 1박 2일의 연극제 개최와 성탄제를 통한 OB와의 어울림 제, 학기 초에 한 달 동안 신입회원을 모집하려 동분서주 하던 일, 7개 대학이 참가하는 등반대회 개최 등을 3년 동안 참 열심히 했다.

그 즈음 교황께서 한국을 다녀가셨고, 지학순 주교님과 ‘젊은이와의 대화’ 프로그램 참여라든가, 외국인 사제로 우리나라 속담과 격언 및 방언까지를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지도신부님과 신앙생활의 방법차이로 밤새 논쟁 하던 일, 명동성당에서 성탄미사를 보고 밤 새워 눈길을 걸어내려 오던 일, 김승훈 신부님께 떡국 얻어먹던 일, 학원안정법인가 하는 법 제정 시도로 학생들이 들끓어 추기경님께서 최고 지도자와 면담하시던 날 비상대기 하던 일 등이 기억난다.

대부분 도보로 정리되지 않은 용인의 고초골을 넘어 미리내 성지를 지나 만리포에 이르렀던 성지순례, 베론 성지를 지나 동해안을 가로질렀던 순례행사, 등반대회 때 우연인 듯 필연인 듯 도봉산에서 준우승 팀 소속인 평생의 반려자가 된 아내를 만나는 등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가톨릭학생회의 맨 앞줄에 떠밀려 서 있었다.

시장 터에서 수시로 이천 원이면 순대와 떡볶이에 소주, 막걸리까지 나오는 푸짐한 먹거리를 놓고 최루탄에 눈물 콧물 흘쩍이며 젊음을 노래하다 보니, 주량도 늘었다. 냉면그릇에 소주 부어 마시기는 일상이 되고, 오며 가며 어지간한 최루탄도 견딜 만큼 단련이 될 때, 어떤 친구들은 벌써 고시 1차에 줄줄이 합격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황소 팔아 깡촌에서 올라 온 법대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종교 활동에 폭 빠져있으면서도 장학금을 받으니 그것도 용하다 하시는 지도교수님의 채근

이나, 과 조교와 선배, 친구들의 편잔을 들으면서 청운의 학창시절이 천주교로 도배되고 있었다.

학생의 현실참여로 학생들이 몸살을 앓던 시기, 온 밤을 하얗게 새워 설전을 하며 의견을 달리던 일부의 학생들은 결국 이탈하였는데 그 후 그들은 모 대학도서관 사태 때 대부분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들 중 모 회사의 패밀리로 소문난 주도했던 학생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도 들려오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리고 아프다.

4학년 1학기 여름이 시작되던 날 입대하여 가까머리로 홀로 찾아간 강원도 군부대가 생각난다. 신병훈련을 마친 늦여름 오후, 차를 세 번이나 갈아타면서 밤 12시 가까이 마치 북한 땅으로 넘어갈 듯 북으로 달려 이른 아침 바라본 주변은 참담하였다. 양쪽이 가파른 산등성으로 둘러싸여 시야 확보가 90도 정도에 불과해 겨울의 일조시간이 고작 4시간 정도라는 강원도 산골짜기로 자대 배치를 받은 것이다.

군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후 제대를 다섯 달 남겨놓은 병기고 담당 말년 병장이 저녁 ‘짬밥’을 먹은 후 병기고로 나를 불렀다. 사람 같구는 데 일가견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선임의 호출을 받아 저녁에 외진 곳에 있는 병기고로 간다 하니 주변 고참들은 “뭘 잘못했나?”며 뉘칠 각오하고 갔다 오라는 말에 잔뜩 주눅이 들어 올라갔다.

그러잖아도 가방 끈이 길어 쥐어 박히던 차였다. 재수를 한데다 그노므 고시 준비한다고 군대를 미루다 보니, 대학졸업 반년도 못 남기고 나이 먹어 간 군대라 중대장과 나이도 별 차이 없었다.

아뿔사, 이런 오라질 낭패가 있을까. 더구나 일주

일 후면 제대하게 된다는 동네 3년 후배가 자대 배치 받았을 때는 말년 휴가 중이었던 다른 고향 출신인 자신의 후임병 이를 두 개나 부러뜨린 악질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던 중이었다. 동네 후배의 전역식에 식당으로 갔더니 수박 한 조각을 안주로 건네고 국그릇에 소주를 가득 부어주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로 내가 고생을 할 것 같아 죄송하단다.

군기반장에 접어든 동향 상병에게 선배 잘 부탁한다는 말은 전하는데 주변사람들은 말한다. 부탁 받은 상병도 나에게 얼마나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며, 이빨 빠진 그 병장이 오면 이빨 네 개 정도는 빨리 자진해서 반납하는 게 차라리 약과일거라 했었던 터라, 아튼 그 기간 좌불안석하고 있던 중이었다.

병기고 문 앞에서 몇 번을 빙빙 돌다, ‘그까짓 한번 죽지 두 번 죽겠나 병신 안 되게 잘 맞아야 할 텐데’하며 한숨을 들이 쉬고 주먹을 불끈 쥐 채 들어섰다. 어두운 곳에 앉아 부동자세로 움썩달싩 앉고 서 있는 내게 한참을 이것저것 시시콜콜 묻더니 말끝에 천주교 다닌 지는 얼마나 되고 세례명은 무엇인지 물었다.

잠시 후 소시지 한 개와 초코파이 한 개를 건네주며 앉으라 한다.(군대에서의 초코파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하늘도 땅도 알 사람은 다 알지 않는가) 그러더니 부대에서 2년 반이 넘도록 천주교신자가 자기 혼자란다. 자기도 제대가 반 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오는 것이 너무 반갑다며 주일에는 자기와 같이 성당 가자고 한다. 그동안의 긴장이 허탈했지만 어쨌든 의지할 것 없는 암흑 속에서 천주님이 자신의 존재를 뚜렷이 각인시키셨다.

그 후 두 번 정도 같이 성당에 갔고, 그가 제대한



후에는 상병들 두 명과 함께 갔다. 부대는 민통선 안에 있고 성당은 민통선 밖에 있는 지라 이등병 혼자 보낼 수는 없다 하여 동행해주는 것이다.

일요일 종교 활동시간이면 불교는 반나절 동안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어서 제일 많이 참가하고, 개신교는 먹을 것을 많이 줘서 두 번째로 많이 가는데, 성당은 잠도 못 자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며 겨우 초코파이 하나만 달랑 주고는(그래도 겨울날은 커피를 함께 주니 다행이기는 하다. 긴 줄을 늘어서서 후루룩 빨리 마시고 컵을 다음 순서에게 넘겨주려다 입천장 테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시간도 2시간 밖에 인정하지 않으니 인기가 없다.

뭔 일을 저지르지도 모를 신병을 혼자 보내는 것은 아니어서 상병 두 명이서 함께 동행해주는 것이 어디냐 하겠지만, 그들은 나를 성당 안으로 밀어 넣고 들이는 개울가 돌다리 아래서 경월소주에 콩치통조림을 까 먹어대고는 미사 끝나는 시간에 맞춰 불쾌한 얼굴로 나타나 초코파이나 영원한 오빠 국민가수가 홍보하는 맥콜 한 병 건네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군에서 더디게 흐르는 시간 중에도 내몰리 듯 쭈뼛쭈뼛 나서게 된 전 부대 대항 멸공웅변대회에서 어설픈데 최고상을 받는 사고(?)를 쳤다. 한 번도 웅변 경험도 없이 우승자에게 1주일짜리 휴가를 준다는 포상 약속에 눈이 멀어 나갔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가 부산경남 최고의 웅변가라며 웅변학원까지 경영한다는 다른 부대의 늑다리 신병이라는데 내가 듣기에도 정말 잘 하였다. 그의 몸짓과 음색은 감명적이어서 ‘아, 전문가란 저런 것이구나.’하는 감탄사를 연발했었다. 결과가 나온 후에 자신이 웅변대회에서 2등을 한 것은 치욕 중에 치욕이라고 탄식하며 웅변학원 경영을 접어야겠다며

울분을 토했다는 후문이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말의 참진리를. 그가 몰랐던 것은 나는 ‘짬밥’ 맛을 알 만큼 먹은 일병 중짜요 그는 이제 훈련병 땀물도 안 빠진 입대 4개월 차의 이등병이었다는 것을 말이다.

군에서의 너댓 달 차이는 ‘짬밥’ 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군화 광내는 기술, 칼 주름 잡는 다림질, 모포 각과 관물대 정리는 물론 근무 중 눈뜨고 잘 수 있는 비기와 절대 눈에 띄지 않고 짱 박히는 장소를 탁월하게 선택하는 방법도 나날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 정도면 작업장에서 제일 쉬운 일을 맡기 위해 다수에 묻히는 기술은 신병들은 절대 뛰어 넘을 수 없는 영역이며, 전설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 특명에서도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도 말이다.

하여튼 웅변에서 최고상을 받은 그 사건 이후로, 나서기만 하면 우승을 하는 지라 전 부대를 돌며 정신강화 시간에 웅변을 하며 다른 부대 바람도 쐬곤 하였다. 그 경험으로 찬란한 사회의 바람으로 경직되는 순간이 오면 잘 견뎌내는 힘이 되었다.

군에서의 웅변이 지금의 독서단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긴 시간, 목소리를 가다듬는 훈련기로 하여 주셨음인지도 모르겠다면 지나친 억측이려나? 독서봉사가 있는 날이면 나름대로 원칙을 정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리 곤란한 경우가 생길지라도 가능하면 평일미사는 하루 전, 주말미사는 이틀 전까지는 금주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읽은 내용을 녹음하여 다시 듣고 묵상을 한다. 독서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쯤 몸을 씻고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갖춰 입고 15분 전 독서자 자리에 앉는다.

이를 지켜보는 집사람은 등극 식을 하는 사람보다 더 엄숙하다고 놀리기도 한다. 목소리를 최대한

유의하지만 환절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자연스럽게 없는 음성이 도질까 염려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는 긴장을 풀기 위하여 ‘독서하는 순간은 천주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니 항상 맑은 소리를 유지하지는 않으실 예수님께서도 감기 걸리신 것일 것이다.’ 하고 신자도 생각해 주시겠지 하고 위안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나만 그러한 줄 알았는데 독서단 활동을 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모두 그러 하신다니 참으로 놀라웠다. 사실 난 수 천명 앞에서는 말하고 강연하고 사회를 보며 행사 진행하는 것을 떨지는 않는다. 그런데 웬지 독서대에 오르는 길은 항상 두렵고 떨리고 입안이 타 들어간다.

봉사활동을 한 지도 수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처음인 듯 송구스럽기만 하다. 백조가 물위에 고즈넉이 있을 때에도 수면 속에서는 엄청난 발질을 해대듯, 독서대 위에 드리워진 모습과는 달리 두 발은 때로는 사시나무처럼 흔들고 있음을 신부님들께서는 아시리라.

군 생활도 어느덧 종교 활동을 혼자 다닐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흘러도 고대하는 신병 신자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나와 함께 천주교 활동을 하는 부대원들은 늘기 시작했다. 병장이 될 즈음에는 불교보다 많아져 최고 인원이었을 때 부대원의 절반이 참여하게 되었다. 종교 활동을 하려면 걸어서 1시간이 소요되므로 9시에 나서는데 성당이 제일 멀어 우리 종교 팀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그러다보니 부대 순찰 근무 조들을 제외하면 결국 다른 종교 활동은 취소하게 되었다. 잠시라도 민간인 바람을 쐬고프면 종교 활동만한 게 없는데 그러려면 또 천주교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므로 결국에는 계속 천주교 활동인구는 증가되어 나중에는 부대

장이 참여숫자를 제한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어느 날인가 미사 후 군중 신부님께 종교 활동 참가자도 많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려는 부대원도 많으니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여쭙는데, 신부님께서는 다닐 부대가 많고 관할 부대가 원격지인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셨다. 그래서 교리서를 보내주면 스스로 교리공부를 꾸준히 하게 할 터이니 영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지를 요청하니 군부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 동안의 상황을 보아 오셨는지 진행토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수요일 오후 종교시간에는 함께 식당에 모여 교리공부를 하고, 일요일 종교 활동에는 미사 참여를 하고 오가며 교리공부 문답을 푸는 등 5개월 여를 공부했다. 그러다 제대 두 달 정도 남겨 놓았을 즈음 마침 새로 부임한 대대장이 천주교 신자이셨고 신부님께서도 준비가 된 사람을 추천하면 당신께서 확인하고 영세를 주겠다고 하시어 대대장과 내가 각각 4명씩 대부를 서고 엄선된 8명이 영세를 받게 되는 축복된 자리가 있었다. 대대장은 영세 선물로 목주 8개를 준비해서 건네주셨다. 고된 군 생활에서 천주님의 자녀로 서게 된 그들의 경건한 모습이 지금도 또렷이 떠오른다.

대학생활과 군부대에서의 천주교에 대한 열정적인 나의 삶은 인생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꽃을 피운 절정기였다. 지금 그 때의 영세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

군 제대 후 3년쯤 지나 우연히 세례자 중 한 명을 본적이 있다. 집사람과 남도여행을 떠나 홍도와 보길도를 둘러본 후 해남 땅끝 마을(토말리)로 향하려 선착장으로 가는 마을 순회버스를 탄 적이 있다.



운전자가 운행 중 룸미러로 몇 번을 훑음훑음 보더니, 혹 김병장님 아니시냐며 물기에 나도 자세히 보니 바닷바람에 그을린 모습이지만 낮도 익고 개그맨 이름을 가졌던 터라 기억나 우연한 조우를 하였었다.

나 역시 냉담 중이었던지라 천주교 얘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들은 수송부여서 많이 맞았는데 김병장님은 절대 때린 적이 없다는 말을 그 째에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우리 두 사람에게서 버스비도 받지 않았다. 해남으로 향하는 철부도선 이층 난간에서 '군에서는 많이 때리고 맞는다는데 정말 손찌검 안하였느냐고 집사람이 물었다.

'평화주의자'라고 에둘러 표현한 바 있지만 단언컨대 난 그런 적이 없다. 늦은 나이에 군에 간 이유도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폭력을 대물림한다는 것은 쪽팔린 행동으로 보였고, 아랫사람을 왜 다그치지 않느냐는 고참의 성화에 부대끼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무뎠었다.

그처럼 많은 동료 부대원들이 같은 종교 활동을 함께 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군대친구는 절대 사회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제대 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선·후임 병들 십여 명과 1년이면 두 번 정도 만난다는 것이 그 확증이 아닌가. 단정한 차림에 자애로운 눈빛으로 가슴 아련히 맑게 쳐다보시던 외로움이 깃들어 보이시던 군중 신부님은 이 하늘 어디에 계시는지!

대학으로 돌아와 취업에 매달리던 시절에도 가톨릭학생회를 번질나게 드나들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가톨릭학생회로는 발걸음이 더뎠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천주교도 내 생활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현실참여의 고뇌보다 사회인으로서 풍족해진 현실에 만족하였다. 천주교를 다시 찾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10여 년이 넘게 흘렀다.

5년 전, 졸업 19년 차로 가톨릭학생회 40주년 기념식과 지도신부님 팔순 잔치를 겸한 날에 찾아갔던 동아리에서 그때의 그 얼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외모도 달라졌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누구는 다른 신앙의 길을 걷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감흥에 젖었던 것은 가톨릭학생회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신학생이 되어 사제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네 명이나 되었던 점이다. 팔순이 넘으신 지도 신부님께서 구부러진 허리위로 고개를 드리우고 그 사제들에게 강복을 받으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셨다.

돌이켜 보면 냉담 중에도 천주교는 내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길을 가다가도 성당이 보이고 수녀님을 뵈 때면, 차 안에서 묵주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은행고객으로 상담하러 오는 손님들의 손에 묵주가 쥐어져 있음을 볼 때마다 가슴 한 쪽이 허전하고 빨리 다시 찾아뵈어야 한다는 구속감 같은 것이 있었다.

부활절, 성모승천대축일,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성당주변을 랜스레 기웃거리곤 하였다. 결국에는 당신을 떠나려 하거나, 떠나 있을 때도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당신의 자손들을 지켜보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당신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묻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아 주신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세상 욕심이 많고 부족하며 나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주님 안에서 다시 찾은 나의 남은 삶에 평화와 기쁨을 가득 담으시어 하루하루가 왜 최선의 순간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항상 되새기게 하신다.

그 분은 참으로 놀랍고 경하스러운 분이시다. 📖

봄

김정희 마리엠마

추위에 영겨가는  
 나를 바라보던 그대가  
 슬그머니 손을 뻗어 오고 있었네  
 내 추위가 너무도 시려  
 그대 손잡기가 주저되었으나  
 그대마저 얼어가니  
 그대 손을 잡기로 했네  
 그러나 펼쳐낸 허허로움에 그대조차 굳어가고  
 손을 뿌리쳐 밀어내 보려 해도 이젠 얼어붙은 그대와 나  
 매어둔 내 마음눈물이 그제야 땅에 떨어지고  
 구르는 눈물소리에 하나 둘 없어오는 손  
 이제 더도 덜도 아닌 추위를 기대어 나누게 된  
 동무들이 생겨나  
 속삭속삭 어둠을 삼켜보네

이 시작은 그대의 손을 내어 줌이었을 진데  
 나 그대의 손을 잡음으로  
 떨고 있던 맘의 온기를 입혀  
 온화한 긴 밤의  
 우리가 되었구려  
 이제 어우러져 가는 속삭임을 숨길 수가 없으니  
 당신을 외쳐 부르렵니다.  
 보옵소서 임이시여  
 저희에게 산들바람 한소끔 뿌려주십길 청하나이다. 📖





## 3구역 1지역 피정 소감문

피정 주제 :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9반 서남희 데레사



‘관계’라는 주제로 성당에서 피정이 있었다. 루카복음 15장 11절~24절까지의 말씀 ‘되찾은 아들’을 피정 주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담아 표현해보는 내용이었다.

피정 중에 나를 중심으로 부모님, 남편, 아이들, 이웃과의 관계와 칭찬할 점, 장점들을 표현하고 앞으로 내가 노력할 점들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 중 한 분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

그때 부치지 못한 편지를 해나리를 통해 부모님께 보내고 싶다.



<엄마, 아버지께>  
전화기를 들고 자랑하듯 말합니다. ‘우리 엄마께 전화해야지!!’  
철없는 둘째 딸아이가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구나?’ 하고 의아해하며 놀란 듯 바라본 적도 있었답니다.  
제가 낳은 아이들에게조차 자랑하고픈 엄마, 아버지.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야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제 아이들이 제게 기쁨과 위안을 줄 때, 또 아픔과 시련을 줄 때도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조언해주셨던가? 이렇게 힘든 시간은 어떻게 견디셨을까? 생각해보곤 합니다.

제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고 저처럼 부모가 되면 제가 엄마, 아버지를 너무도 따뜻하게 느끼듯이 그렇게 저에게서 포근함을 가질 수 있을지... 저는 간간히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제 언행을 되돌아봅니다.

항상 저의 든든한 지원자, 모범적인 거울이 되어주신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딸 남희 올림 📧

9반 김현주 보나



팔십이 넘은 내 아버지는 당신 맘속의 담아둔 자식에 대한 애정을 그다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셨다. 당신이 가뻐이 사랑을 표현하면 어린자식들이 유약하게 자랄 것 같아 두려워서 그러셨을까?

지금 내가 부모가 되어서도 ‘아버지’ 하면 여전히 ‘어려운 분’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이렇듯 아버지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나 뿐이겠는가!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종종 아버지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곤 한다.

세태가 변하여 요즘 아버지는 ‘아빠’라는 명칭으로 변하면서, 자식에 대한 간질간질(?)한 사랑을 쏟아 부으며 자녀와 진한 우정까지도 쌓아가며 사는 모습을 본다. 행복한 모습으로~~

사랑!!!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던가! 아무리 마음은 사랑을 가득 담고 있다고, 내 마음 왜 모르느냐고 속으로 외쳐본다 해도 말로 표현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마음속까지 읽어낼 수 있을까! 이제는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잘 했다고... 표현 해 보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들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질까!

주님 수난시기를 맞이하며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매달려 계신 주님께서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보고... 나도 내 부모님, 남편, 아이들, 이웃에게 한껏 그 사랑을 표현해 보아야겠다.

사랑합니다!!! 이 만~큼!!! 📧

### 2011년 6월 12일 성령강림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로부터 만 7주간이 되는 50일째를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이 축일의 신약적 기원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인하고 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기념했던 과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축일로 손꼽히고 있다.

오순절은 시나이 계약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데 이집트 탈출 50일째 되는 날에(탈출 19, 1-16)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하느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하느님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온 것은 곧 예수께서 주신 약속의 선물, 즉 성령, 사랑의 새 법과 상통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고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받은 새로운 계명의 의미를 보다 깊이 알아들을 수 있다. 오순절은 바로 우리 삶의 시작, 우리 삶의 현장이다. 예수를 보지 못해도 확신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의 현장이다. 오순절은 곧 천상 예루살렘의 지상 실현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종말의 의미를 지닌 사건이기도 하다.

- 이영춘 세례자요한, 알기 쉬운 전례와 미사 해설 -



##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레지오 20년입니다

죄인들의 피난처 Pr. 황경희 엘리사벳



세실리아 씨!  
처음 만난 그날은  
우리 Pr.이 은빛대학  
음식봉사를 하는 날  
이었죠. 일하는 곳으  
로 와서 인사를 하는  
데 얼마나 예쁘던지

요. 단원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복지당도 다녀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며칠 전 장례미사 활동을 드렸는데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지요?

“단장님 장례미사가 8시면 가려고 했는데 7시로 바뀌어 아이 학교 갈 시간이어서 가지 못 해 죄송합니다.” 라고요.

그 시간 아이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하는데 지장 없게 해야지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하는 활동은 아니랍니다. 집안일에 소홀하면 아이들과 남편이 레지오 활동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겠죠. 성모님께서도 가정에 충실히 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더욱이 우리 성당의 후보성인이 ‘성가정성당’이잖아요.

하지만 레지오 단원이 되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랍니다. 주회 날 이 약속 저 약속이 잡힐 때가 많지만 대부분의 레지오 단원은 회합을 우선순위로 활동한답니다. 레지오 회합이 먼저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약속도 피해가는 은총을 맛보게 될 겁니다. 회합 날은 성모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날이라며 모든 약속을 안 잡는 것은 물론 지각도 하지 않으려 하는 형제님도 계시죠.

입단 2주차가 되었는데 레지오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죠? 세실리아씨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말고 우리 꾸준히 배우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는 20년 전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평생 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불안해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지내야 했어요. 그때 레지오 단원이신 반 형님과 자매님이 기도해 주면서 레지오에 들어오면 나올 거야 하시며 입단을 여러 번 권하셨죠. 아프고 아이도 여섯 살이라 손가야할 일이 많아 망설였어요. 그러다 문득 레지오는 기도하며 봉사하는 단체라던 말씀에 끌려 레지오 단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원이 된 지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세세한 것은 레지오 식구가 되어 깊어지며 알아가겠지만, 우선 레지오 단원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레지오 단원은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2시간은 의무로 해야 한답니다. 제가 입단해서 19년 동안 활동한 Pr.은 설립된 지 25년이 되었어요. 그 Pr.의 단원들은 복지시설 주방청소, 병원 호스피스, 병원 중앙공급실 봉사, 은빛대학 선생님 등으로 봉사하시면서 연세를 잊고 꾸준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때만 해도 가끔씩 가정에서 입관이며 연도를 했죠. 신입단원 시절 집으로 연도를 가면 생소하고 무서워서 안쪽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연도를 마치면 얼른 나오곤 했죠. 집에 오면 어머니께서 상가 집에 다녀오면 소금 뿌리는 거라고 제게 소금을 탁 탁 뿌리기도 하셨답니다.

병원봉사를 갔을 때가 기억나네요. 원목실에서 처음 배정 받은 것이 도서봉사였는데, 병원에는 아파서 온 환자분들이고 돌보는 가족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죠. 책 안내를 하며 “좋은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라도 하면 좋을 걸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더라고요. 차츰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부님, 수녀님, 봉사자님들의 모습을 보며 그분들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조금씩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 곳에서도 매주 오시는 봉사자님께 시간의 나눔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매일 감사하게 되었죠. 또한 레지오 단원답게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고 매일 미사에 참례하며 기쁨을 맛보고 있답니다.

레지오는 도제제도(徒弟制度)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선배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단원들이 배워가는 것인데요. 어느 단장님이 그러셨어요. “레지오단원이라면 간부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지, 간부를 할 기회가 왔을 때 거부하지 말아야 해” 라시며 지금도 실천하고 계시요. 굶은일도 마다않고 힘든 일을 하시는 어느 형님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작년에 Cu. 단장을 할 때였어요. 어떤 자매님이 “단장님! Pr.단원 2명이 남았는데 저희 팀 좀 도와주세요.”라며 손길을 내미셨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팀을 합칠까 해체할까를 고민할 때 Cu. 서기님이 “단장님 Pr.해체는 절대 안 됩니다. 저하고 같이 그 팀으로 가요.” 해서 지금의 죄인들의 피난처 Pr.은 4명으로 시작 되었어요. 간부 감투를 몇 개나 가져야 했어요. Cu. 단장이 Pr. 단장겸직, Cu. 서기님은 소년 단장을 겸하는데도 Pr. 서기로... 그렇게 시작된 우리 팀은 단원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새 단원들이

입단하기 시작해서 세실리아씨의 입단으로 현재 10명이 되었습니다.

단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마음을 다한 기도와 미사 참례에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열매로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돌아켜보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이 많습니다.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 시어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년 전, 레지오 활동을 하면 디스크도 나올 거야 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이 되니 매일 묵주기도를 잊지 않게 되었지요. 또 누군가 아프고 힘들 때 기도를 해드리지만 저도 많은 기도를 받지요. 시간을 나누어드리니 그분도 행복하고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렸다는 뿌듯함이 저를 행복하게 하지요.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무엇보다 큰 은총과 사랑이랍니다.

세실리아 씨!  
어머니께서 Cu. 단장님을 하셨다고 하셨죠. 피정날 Cu. 단장님 기도하시는 모습 보며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마이크 잡고 하셨을 텐데 나는 어머니께 예쁜 옷도 못 사드렸다고 마음 아파하시더군요. 어머니 사랑에 감사하신다는 말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사랑과 기도로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실리아씨도 어머니께서 하느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셨기에 훌륭한 주님의 자녀로, 사랑을 전하는 훌륭한 레지오 단원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레지오 단원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줘요. 우리 기도로 풀며 행복하게 같이 배워가자고요! 🙏





## 신앙생활과 마라톤이 너무 닮았어요

안병정 요셉



나는 40대 중반까지는 무신론으로 일관하며 성당 가는 가족의 기사를 하다가 통신교리를 통해 모두의 축하 속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라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일반인을 위해 개최한 풀뿌리 마라톤의 원조격인 서울 마라톤 대회 5Km에 도전하면서부터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듯이 신앙생활도 흡사한 듯해 몇 가지 비교해보려 합니다.

첫째 처음부터 각오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너무 빨리 달리는 것보다 천천히 오래 달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마라톤이나 시작하는 계기가 어떻던 지 나름의 비장한 각오와 목표를 갖고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핏계나 구실을 달아 소홀하게 되기도 하지요.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삶을 흉내 내며 살다보면 천국 문에 이르게 될 것이고, 마라톤도 날씨가 궂어 달리기 힘들듯 하면 하루만 쉬고 싶다는 유혹이 생기지만 이를 뿌리치고 꾸준히 훈련을 하다보면 좋은 기록도 나오고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신앙생활이나 마라톤을 하다보면 고난과 고비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충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유혹에 빠져 나태해지면 냉담을 하게 되죠. 마라톤 역시

부상 등으로 훈련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조금해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지내다보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달리게 되어 생활에 활력을 갖게 됩니다.

셋째 기도와 마라톤은 복잡한 일들의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약과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 가운데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일이 생길 때는 눈을 감고 정리하는 시간 즉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반바지 차림에 운동화만 신고 10Km 정도 거리를 뛰면서 복잡한 생각을 떠올려 정리하며 땀을 흠뻑 흘린 후 샤워를 하면 날아가는 기분이 되는데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과 마라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성당 내 마라톤 동호회인 '목5련'에 가입하여 회원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과 훈련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참가했던 동아 마라톤은 20회 이상 풀코스를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3시간 45분의 최고 기록으로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습니다. 4월 9일에는 10Km 울트라 마라톤 완주로 기분이 한껏 부풀어있고 마라토너로서는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신앙생활은 주일미사만 겨우 참례하고 있어 크게 미흡하여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성서공부, 봉사활동 등을 병행하며 폭을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출발 전이나 뛰는 중에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며 무사히 완주하게 도와주십사 기도드리며, 주로에서는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써주신 '달려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셔츠를 입고 뛰는 가톨릭 달림이를 만나면 서로서로 '파이팅'을 외치며 무사완주를 기원하기도 하지요.

마라톤에서 기록은 훈련에서 흘린 땀의 양과 비

### 달림이의 기도

이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저희들에게  
달리기를 통하여 삶 속에서 반짝이는 창조력과  
생의 의지와 인내력을 키워가게 하시고  
당신 은총의 손길을 찾아내는 지혜의 눈을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달리기를 통하여 새롭게 관조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달림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마다  
당신의 숨결과 기쁜 소식을 담아  
이웃에 전파할 수 있게 하소서

달리는 가운데 인내심을 키우고  
고통을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여주시고  
그 안에서 생의 존재가치를 깨달아  
생활 속에서 자연 속에서 달리는 가운데  
당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느끼고  
당신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레하듯이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느끼는 체험을 하다보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달리기에 딱 좋은 계절이 되었으니 마라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목5련 동호회와 함께 하시며 마음의 평화와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지요.

지나간 삶의 흔적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고  
하루하루 삶을 사랑으로 행동하며  
뛰는 걸음걸음마다 복음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달리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의 꿈과 생의 의지를 희망으로 그려내며  
당신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 성경필사를 하며

[선우 원건]



처음 내가 성경필사를 시작한 이유는 문화상품권 때문이었다. 성경필사를 하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것에 혹해서 시작했다. 짧은 구절이어서 '뭐 하루에 15분 정도 쓰면 금방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왜 요걸 써야 하지?'라는 생각도 들었다.

성경필사를 하루하루 열심히 써나가다 보니 한편의 성경이 된 것이다. 성경을 쓰다보면 주님의 길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성경필사는 주님의 길에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아닐까?

나는 성경말씀 중 마태복음 제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예수였다면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었을 것이다. 그게 제자들에게 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선우 양건]

주일학교에서 해나리에 글을 쓸 사람을 정한다고 하였다. 나는 손을 들고 '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해나리에 글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열이 나면서 쓰지 못했고 해나리에 글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실망감이 컸다. 그런데 얼마께서 주일학교에 와서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께서는 선생님들과 회의를 여시고 나라 내게 동생 원건이 하고 같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게 생각해보면 다 주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인상 깊었던 구절은 20절에서 25절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대목에서 유다는 정말 뻔뻔한 성격을 보여준다. 자기가 할 거면서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묻었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유다였다면 사실대로 말했을 텐데... 유다는 정말 나쁜 제자다.

나는 성경을 쓰면서 유다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법정에서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배신하는 일은 지금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성경필사를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위대함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성경 필사 때에도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주님의 은총으로 선생님들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는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주님의 은총을 더 받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훌륭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겠다.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항상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

### 부활 선물을 준비하며



청년연합회 & 복사단 정다솔 세례자요한



길가의 나무엔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고, 활짝 핀 꽃들이 향긋한 꽃 내음을 날리는 봄이 왔습니다. 유난히 춥고도 길었던 겨울이었기에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지금을 많이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에 성당에서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사순시기와 부활절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부활 달걀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곤 합니다. 청년 연합회에서 이번 부활을 맞이해 청년 미사에 참석하시는 신자 분들과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묵주 팔찌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묵주기도를 어려워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 묵주기도는 가장 좋아하는 기도이고 많이 바치는 기도입니다. 물론 저도 각 신비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집에서는 9일기도 책을 이용하기도 하고, 밖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기도문 만이라도 바치게 됩니다. 묵주 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제 곁에는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서 마음이 어수선할 때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으면 이내 평안해진 저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나들이 인파가 북적인다는 기사가 나온 주말 낮, 연합회 방에는 10여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주말이라 쉬거나 놀러가고도 싶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만들어야 할 묵주가 많게 느껴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방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저녁때가 지나고 나서도 생각만큼 많이 만들지 못한 것을 보니 힘이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얘기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던 연합회 방에도 대화가 줄고, 사람들 얼굴엔 점차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시작할 때는 가느다란 끈에 쉽게 들어가던 구슬도 시간이 지날수록 구멍도 잘 안보이고 꿰는 작업이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릴 때쯤 만나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라는 인사를 건넸던 것 같은데, 성당 문을 나설 때는 쌀쌀함이 느껴지는 밤이 되었습니다. 결국 계획과는 다르게 2주에 걸쳐서야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매번 누군가 준비해 주는 것을 받기만 하다가 내가 직접 만든 것을 신자 분들께 드릴 생각을 하니 설레는 마음과 함께 잘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긴 시간 묵묵히 묵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모인 청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만든 묵주 팔찌를 신자 분들과 나누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저희가 엮은 한 알 한 알의 구슬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 누군가는 감사의 기도를, 다른 누군가는 청원의 기도를 바칠 수 있는 묵주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 속 깊이 보람을 느낍니다. 작은 선물이긴 하지만 잠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중 · 고등부 주일학교

고등학교 2학년 김도현 아네스



2011년 새 학기, 고2 교리를 시작한 첫 날이다. 4월 3일 야외수업 교리를 어디에 가서 하면 좋을 지 회의를 했다.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는 의견을 모아서 남산에 가기로 정했다. 우리가 학기 초부터 야외수업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 1년 간 하느님의 말씀을 같이 배울 친구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친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선생님들의 뜻이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야외수업 날! 나는 원래 아침잠이 많은 편이지만 이 날 만큼은 아침에 눈이 번쩍 뜨였다.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하며 잠들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맑았다. 우리는 8시에 성당에 모여서 아침으로 먹을 빵과 음료수를 산 후 차에 올라 남산으로 향했다. 가면서 멀리 사는 친구들도 태우고 갔다. 간식도 먹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도 따라 부르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장난도 치다 보니 어느새 남산에 도착했다.

나는 서울로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동

말고는 서울 지리를 잘 모른다. 거기다 남산은 평소 와보고 싶던 명소이기도 해서 신기함에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선생님께서는 케이블카를 타러가는 동안 마치 가이드처럼 재미있게 안내를 해주셔서 더 신이 났다. 바람이 조금 차긴 했지만 돌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였다. 우리는 케이블카 표를 끊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엄청 들떠 있었다. 그렇게 타고 싶던 케이블카를 드디어 탈 수 있다니! 하지만 난 이제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들떠 있는 티를 내지 않았다.

케이블카를 타고서 보니 서울이 다 보이는 듯했다. 너무 멋있었다. 우리는 같이 탄 분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서 나는 케이블카 밖을 내다보았는데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가 잘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이걸 어떻게 잘랐을까' 계속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생각도 잠시, 케이블카가 벌써 정상에 도착한 것이다. 산이라서 꽤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아쉽고 생각보다 케이블카에 조금 실망한 면도 있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계단을 조금 올라가니 남산타워와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던 자물쇠들이 보였다.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것으로 만족했다. 또 여기저기 걸려있는 수많은 자물쇠를 구경하다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양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자물쇠 중에서 하나 풀면 내가 점심 쏜다!"고 하셔서 우리는 번호로 된 자물쇠를 미친 듯이 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명민이가 결국 일을 냈다. 번호를 푼 것이다. 선생님께서 당황하셔서 자물쇠를 푼 사람만 사주시겠다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 지지 않고 떨어진 자물쇠를 주워 다 풀었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다.

어쨌든 정상을 둘러보고서 내려갈 때는 걸어서 내려왔다. 나는 내려가면서 '아까 올라 올 때에도 걸어서 올라오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날씨도 좋고 경지도 좋고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나는 치마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우리는 내려오면서 단체사진도 찍고 자신의 모습을 찍기도 하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찍고 또 찍었다.

올라오다가 본 애니메이션 센터에도 둘러 신기한 게임들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신없이 놀다보니 어느새 점심 먹을 시간이 되어 우리는 신당동으로 갔다. 역시 신당동하면 떡볶이! '원조'라는 간판을 붙인 수많은 가게 중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간 곳은 조금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매우 많았다. 역시 명성만큼 맛도 있었다. 우리 고2반은 모두 부른 배와 행복한 기억을 안고 3시 미사를 보러 성당으로 돌아왔다.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야외수업 내내 웃으면서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 안에 한 자리에 모인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평생 간직할 추억이 될 것 같다. 나뿐 아니라 같이 다녀온 친구들도 모두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야외수업을 통해서 아직은 조금 어색했던 우리 반은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번 야외교리를 통해서 가까워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고2반이 2011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리와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20, 27-28)





사진으로 보는 본당의 소식

❖ 4월 3일 예비 신자 받아들이는 예식



5월 수요일교리 시작 반 모집

본당에서는 매월 요일을 바꾸어 예비자 교리 반을 개설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리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40  
저녁 8:00

❖ 4월 17일 레지오 전 단원 피정



레지오 마리아의 10가지 정신 가운데 성모님의 겸손한 마음에 대한 피정

예수성심전교 수도회 강화신학원 안창호 말다신 원장신부님



❖ 4월 19일 사순절 대청소



❖ 새로워진 성당마당



이전의 성당동산

공사중인 성당 마당

❖ 4월 24일 부활 기쁨 음식 나눔



❖ 4월 24일 목5련 양천 마라톤 대회



❖ 4월 25일-26일 여성구역장 단체장 엠마우스 \* 여정: 이태석 신부 묘소~순창 고추장 마을~담양 소재원



완공된 성당 마당



## 성모회에서 북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성모회장 이순자 만나



4월 5일 그동안 침침한 공간으로 남아있던 지하 소성전 옆을 밝고 예쁘게 꾸며 주교님을 모시고 축성식을 가졌습니다. 이영춘 세례자요한 신부님께서 문화사목의 한 부분으로 목5동성당에 '북카페'라는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성모회는 본당 신자와 지역 주민들께 수준 높은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비신자들은 성당에 오기 쉽지 않았는데 책과 커피, 갤러리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임신부님께서서는 건강을 위해 유기농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성모회원들은 기도와 사랑이 담긴 커피, 깨끗한 위생, 따뜻한 미소로 방문객들에게 맛있고 질 좋은 유기농 커피, 유기농 과일 음료, 과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컵을 가져오시면 500원을 할인합니다.

북카페 운영시간은 월~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둘째 주 월요일과 주일, 공휴일은 쉽니다.

사랑이신 주님과 겸손하신 성모님께 성모회원들이 북카페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에 감사와 찬미 드립니다. 또한 주임신부님께서 부족한 회원들이 배우며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모회는 성모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주시길 예수님께 청하셨듯이 우리도 물이 사랑의 커피로 변화되도록 성모님께 기도합니다.

즐겁고 보람된 봉사를 위해 많은 성모회원이 들어 오시길 북카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립니다. ☺



그동안 성모회는 본당설립시절부터 봉사단체로 활동하며 성당 주방 봉사, 농수산물 판매, 바자회 등 많은 부분에서 봉사하다가 현재는 성물방과 농수산물 판매, 성모회로 나뉘어 각 단체가 맡은 바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의 역사와 함께 하는 성모회의 봉사활동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무한한 길이가 될 만큼 다양하지만 특히 이번에 열린 북카페에서의 봉사활동은 참으로 그 의미가 새롭고 뿌듯하게 여겨집니다. 성모회원의 활동 중에는 커피 자판기 관리 및 운영과 토요일 혼배미사 때는 신부대기실과 폐백실로 사용되는 방을 꾸며 결혼을 돕는 봉사가 있습니다.

이제 성모회는 자판기 운영과 폐백실 봉사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마음과 맛있는 커피가 만나는 북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모두는 교우 여러분께 맛있게 내린 커피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발걸음이 북카페로 향하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3구역 1지역 소공동체 모임

3반 반장 한수정 소피아



요즘 우리 주변은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고, 개나리로 노란 물결을 이루고, 벚꽃 몽우리가 터져 흩날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동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봄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목동으로 이사 온 지 2년 남짓, 반장을 맡은 지는 8개월쯤 되었습니다. 신심이 부족한 내가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처음 반장 제안을 받았을 때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반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만 부족한 저를 믿고 끌어주시는 우리 반원들 덕분에 미숙하나마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작은 조각을 연이어 하나의 둥근 원을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이번 달에 우리는 마태오 복음 21장 1~11절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 답니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두 구절이 자매님들 마음에 가장 와 닿았습니다.

구역장을 맡았을 때의 두려움이 지금은 주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는 박 모니카님,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감사일지를 쓰면서 감사할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장 켈프루다님, 봉사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열정이 식어감이 느껴져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결심

하신 김 아네스님, 팔순을 바라보시는 권 아델리나님의 겸손이 만사를 평화로 이끌더라는 말씀은 두고 두고 가슴에 새겨두고 싶습니다.

반모임의 장점은 여러 세대가 모여 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의 부모이고 자녀이자 형이고 아우입니다. 또한 누구의 시어머니이며 며느리이고 동서도 시누이도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대화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을 떠올려보고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을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와 생활 속에서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간다면 조금 더 그 분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가슴 속에 모셔둔 작은 예수님들이니까요.

소공동체 모임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늘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는 반원들이 든든하고 믿음직한 이웃이 되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줍니다. '하느님 안에서'라는 하나의 지향점은 우리들의 결속력을 강하게 해줍니다. 더 많은 반원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3구역 1지역 3반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 하길 바라며 더불어 부활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알렐루야!! ☺



## 환경 생태 사도직 - 우리의 실천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조해봉 요셉 신부

요즘 회자되고 있는 많은 소식들은 주로 환경과 생명, 인간이라는 명제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수 없이 많은 시간, 공간의 초월로 이루어졌을 피조물들에 대해서 인간의 절대적인 본분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태계의 파괴 문제는 인간 중심적인 산업의 현대화, 지극히 식민지적인 선진화,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폭력적 또는 파괴적인 세계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오만, 자만과의 깊은 연관성은 생태계뿐 아니라 창조주라고 백하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염려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회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고 심각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한 오용의 재앙이 이제는 바로 인간에게 미칠 위험이 있다.” (‘팔십 주년’, 21항)고 하신 교황 바오로 6세의 경고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다스림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인간이 예상하는 징벌이 아닌 창조주 하느님의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곧 우주에는 마땅히 존중하여야 할 질서가 있으며 자유로운 선택의 역량을 부여받은 인간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하여 이 질서를 보전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 15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

지난해 1월 1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에서 “더 큰 연대

의식(시간적, 공간적 연대 의식의 요구와 세계적 연대의 추구), 새로운 참여 방식과 형태를 통한 연대와 절제의 생활 방식의 요구”라는 말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현재의 위기들로부터 실천적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태 위기의 고조 속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2010년 추계 정기총회를 통해 <환경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 -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서에서 ‘교회 환경 운동이 우리의 믿음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점을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그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지침서, 2항). 그리고 최근 전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토건 사업’과 관련하여 ‘종교가 왜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느냐는 식의 교회 내·외의 비판들에 대해, 4대강 토건 사업은 하느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인간의 ‘난개발’ 사업이며 ‘반환경적인 계획’이라고 명확한 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지침서, 1항, 7항).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잘 다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1장) 하지만 인간은 하느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앞세워 자연을 마구 파헤치고, 쏟아내고 마치 인간이 하느님인 것처럼 자연의 모습을 바꿔버리는 난 개발과 파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느님 창조질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함을 일깨우는 장이며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살아함을 되새겨야 한다.

이렇듯이 교회는 현대의 위기 상황을 환경과 생태라는 관점으로 주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2011년 3월 20일-4월 20일까지 전입교우 명단

전입 월	교우	구역 / 반
3월	김현정 데레사 외1	목5동 목동@ 329동
	정성현 프란치스코 외1	목5동 목동@ 222동
	김행림 안젤라 외1	목2동 우성@ 104동
	신기택 요한 외2	목5동 목동@ 309동
	박명옥 캔다스마리 외 2	목5동 목동@ 120동
	조경호 빅토리오	목6동 한신@ 111동
	백태년 안나 외 1	목5동 목동@ 306동
	김미정 안젤라	목5동 한신@ 103동
	윤일진 베드로 외1	목5동 목동@ 304동
	장수 요한 외2	목5동 목동@ 219동
	이규완 가브리엘 외 3	목5동 목동@ 531동
	박혜란 헬레나 외4	목5동 현대월드타워
	4월	김지연 아네스
석지홍 세례자요한 외1		목5동 목동@ 122동
최주연 로사 외1		목5동 목동@ 510동
최승제 요한		목5동 목동@ 402동
이상현 발레리오 외3		목5동 부영2차 A동
장현석 요셉 외1		목5동 목동@ 307동
정봉옥 마리아 외1		목5동 목동@ 205동
홍명숙 모니카 외2		목5동 목동@ 221동
유남경 요안나 외 3		목5동 목동@ 121동
최명식 베드로 외3		목2동 199-48
정현우 미카엘		목5동 목동@ 324동
구요한 요한		목5동 목동@ 607동
강미현 가타리나		목5동 목동@ 310동
김명효 요셉		목5동 목동@ 131동
김태섭 미카엘 외3		목5동 목동@ 112동
이광준 마리아		목5동 목동@ 217동
강은숙 미카엘라		목1동 하이페리온 101동
장수영 요셉 외2		목5동 목동@ 534동
김현정 바오로 외2		목5동 목동@ 608동
양승희 마르첼리나		목5동 목동@ 127동
김영민 파올라	목1동 파라곤 109동	
박건준 요한 외3	목5동 트윈빌 C동	
이인화 스텔라	목1동 하이페리온 101동	
임영석 마태오 외1	목5동 트윈빌 A동	
김진아 스텔라	목5동 가든스위트 B동	



### 편집후기



★ 교우 여러분의 원고를 받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글이 해나리의 힘입니다. 성당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보고 듣고 느낀 일들을 원고지에 옮겨주세요. 분량은 A4용지 1-2매 정도면 좋습니다. 원고 쓴 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나리 메일로 보내주세요. haenari0330@hanmail.net 입니다.

### - 해나리 광고안내 -

- ① 신청 방법 : 백명에 마르가리타 011-9899-3866
- ② 광고료 : 1회 1호 3만원씩 3회 9만원입니다.
- ③ 계좌 번호 : 외환은행 327-22-01559-1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④ 광고 문안 : Haenari0330@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www.edu-prime.co.kr

만 4세부터 성인까지  
1:1 맞춤형 피아노 방문레슨

## 어드벤처피아노

성악 개인레슨, 관현악 개인레슨  
(바이올린, 플룻, 첼로, 클라리넷, 오보에)

양천.구로지사 **2605-0117**

## 자동차의 모든 것

· 중고차 매매 · 신차(국내 전 차종)  
· 수입차 수출 및 폐차

(주)서안모터스 이현인(바오로)  
H.P. 011-241-1212



유럽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38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4~고1 : 7/23 ~ 8/15(아일랜드)  
중3~고1(여) : 7/23 ~ 8/15(영국)  
대&일반 : 6/26 ~ 8/7(아일랜드)  
주관 : 마 브랜단 신부  
문의 : 그린피스 E&T 02-3446-4253

상담센터 **행복한 아이들**  
소장 정미나(벨미나) TEL 02-2653-4306~7  
현대드림타워 209호 (방송회관 옆 스포츠조선 건물 2층)  
아동상담 - 학습치료 · 놀이치료 · 언어치료  
발달장애 - 통합치료 및 교육 미취학 또는 취학 아동의 예비학교  
집단상담 - 학습능력향상 / 주의집중력강화 / 사회성 향상  
성인상담 - 개인상담 / 부모상담 / 부모역할훈련  
심리검사 - 자녀의 지적수준과 성격특성을 진단하여 정서 및 학습 등에서 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도움 방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굿모닝 공인중개사**  
목동아파트, 한신청구, 부영전문  
매매 · 전세 · 월세 구함  
**2649-9200**  
목동APT 6단지 611동 앞 관리동 상가  
김정숙(효주 아네스) H.P 011-9498-9433

**청기와 부동산**  
친절 · 성실 · 신뢰  
☎ 2647-1223  
목동아파트, 한신 청구, 주상복합 전문  
목동 APT 5단지 C상가 104호에 있습니다.  
김경화(로사) HP 010-2997-2987

**타임부동산**  
목동아파트 전문  
안인근(안젤로) 조정례(안젤라)  
(代)2654-1055  
- 목동5단지 A상가 105호 -

**이화 공인중개사**  
김은숙(비아) 김현숙(아네스)  
Tel : (02)2644-0043  
H.P : 010-7272-7318  
목동 2단지 일반상가 118호  
등록번호 : 82413342

**나눔 공인중개사**  
**2643-5050** (주, 야간 가능)  
박정림(엘리사벳) 김민숙(요셉피나)  
목동3단지 일반상가 328동 앞 하나은행 옆

**온누리 공인중개사**  
신공웅(도미니꼬) 010-3253-2263  
하영숙(바울라) 010-9671-2369  
TEL. 02-2649-5580  
수수료는 0.2% 염가로 봉사하겠습니다.  
양천구 목동APT 3단지 일반상가 301동 앞 하나은행 옆

**태원 공인 중개사**  
2648-1199, 010-9889-9930  
전양숙(수산나) 백문선(토마스 빌라노바)  
목동 1단지 A상가 106호  
목동아파트, 한신청구, 부영, 오피스텔 전문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원재가복지센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요양기관  
대표/사회복지사 권오철(가롤로)  
전화 2662-7733 HP 011-748-1234  
이웃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5호선 방화역 3번 출구 방향 5분 거리

**초 · 중등 수학과외**  
▶ 전 학년 선행 및 내신 준비와 심화과정까지 (경시, 올림피아드)  
▶ 대상 : 초등~고1 · 경력 16년  
▶ 장소 : 월촌중 옆 (하이베라스) 최지현(로사리아)  
▶ Tel : 010-3996-8031 (문자 남겨주시면 전화 드립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은 **학생치킨** 베이커리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삭바삭한 베이커리인 고단백 저칼로리의 트랜스지방 걱정 없는 구운치킨입니다. 목동점과 함께 하세요. 단체모임/배달 가능합니다.  
김군자(마리아)  
목동점 : 02-2653-9282  
- 309동 뒤 강서고등학교 입구 -

**항외과**  
대장항문전문 (대장내시경 · 치질수술)  
원 장 : 임석원(토마스 아퀴나스) 전 송도병원 진료 부원장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①번출구 앞  
TEL : 855-7175 www.hangpro.co.kr

**강서 성모내과**  
◆ 내시경 (위 · 대장 · 수면 내시경)  
◆ 조음파 (심장 · 갑상선 · 복부)  
◆ 혈액 종합검사  
염창동 국민은행 앞, 전화 : 3662-7585  
원 장 : 김영준(펠릭스)

**꿈나무 소아과**  
소아 아토피 피부염 정연정(안나)  
소아 중이염 원장/소아과 전문의  
알레르기 클리닉  
영유아 발달검사  
158-055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7 광장빌딩 3층  
TEL : 02)2643-8155 FAX : 02)2643-8154

**HERBALIFE.**  
함께해요, 허브다이어트 안옥희(데레사)  
☎ 2648-7942(친구사이)  
현대월드타워 B1 H.P.010-7299-8433  
유기농건강기능식품, 자연화장품 Nutrition club

공인 결혼정보사 - 초 · 재혼 · 만혼  
**m · j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전문 커플매니저 시스템  
Tel. 1566-6205 / 02-3141-3888  
H.P 010-9236-2700  
대표 김 마리아

**김지영 에스테틱**  
원장 김지영(예비자)  
피부 · 비만 · 경락(고주파 관리)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01 신사가지 1단지B상가 외환은행 2층  
TEL: (02) 2062-0848 / H-P: 010-5767-1350  
영업시간 오전10:00 - 오후 9:00

**CELLENIQUE 세레니끄 피부 관리실**  
코리아 화장품의 운영하는 고품격 합리적 가격의 신개념 에스테틱 샵 세레니끄  
평 일 11:00-21:00 김광식(아오스딩)  
토요일 10:00-19:00 이은경(이레네)  
개인룸, VIP 룸, 커플룸 완비  
목동 부영그린 2차 2층 ☎ 2645-0580

**목동 스카이 飛(비) 노래연습장**  
품격과 전망 있는 당신만의 휴식공간  
정진영(바오로) · 한선희(마리아)  
예약문의 : (02)2654-0377  
목동 청소년회관앞(목동하나 프라자 13층)



# 해 나 리 월요음악회

## 5월

월요일 20시  
천주교 목5동성당 대성전  
진행 | 김동규, 김구미

02일

**In the Mood** \_ 오픈공연

린나이 팝스오케스트라 지휘 최선용



16일

**내 사랑 투유**

홍서범, 조갑경



**사랑하는 이에게**

정태춘, 박은옥



23일

**여보 사랑해요**

듀오아임 (김동규, 김구미)



**작지만 큰 울림**

Aurum Pueri Cantores  
아우름 어린이합창단



**본당 일치의 날 행사** (양정고등학교 체육관, 10:00 ~ 17:00) **해나리 음악회** (11시 15분)

29일  
(일요일)

**뮤지컬  
맘미아  
셀렉션**

전수미, 임유, 양시은



**국악명창  
부부**

염경애, 박성환



**저글링  
영혜밀리**



6월

06일

**모짜르트 레퀴엠** (현충일 추념음악회)

Camarata Music Company 주한외국인합창단  
Dir. Ryan Goessl (라이언 게슬)

